

인터뷰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

Interview

“농어촌공사, 농민 든든 지원군 될 것”

투 트랙 전략 농가 안전망 두텁게 할 것

“농업은 어렵다. 33년간 농촌 지근거리에서 농업을 목격한 결론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내 농업에 대해 “쉽지 않은 산업”이라고 결론 짓는다.

농촌 고령화, 인력수급난, 농산물 가격변동, 쌀 소비 급감 등 농촌에 다양한 문제가 포진해 있지만 단순한 일차방정식으로 풀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농촌이 급격한 변곡점에 있는만큼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가장 가능성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농업”이라고 언급한다. 국내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튼튼 지원군’을 자처하면서 ‘농민과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농업을 디자인하겠다는 그를 인터뷰했다.

디지털로 무장...ESG 경영 실현에도 앞장

농가 경영 위기 해소
농지관리 강화에도 심혈

■ “농업인 마음 최우선 고려” 사회 밝혀

정인노 이사는 지난 33년간 농어촌 공사에 근무하면서 농촌 인프라 구축 최일선에서 활동했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역임 후 지난해 10월 농지관리이사로 발령받으며 현장과 실무를 겸비한 관리자로서 ‘농업인’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소개를 밝혔다.

그는 “현재 어려운 농업, 농촌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을 키우고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농어촌공사의 투 트랙 전략을 소개했다.

■ ‘청년농 육성·고령농 노후생활 안정’ 방침

올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청년 농업인 육

성과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다. 정 이사는 “청년 세대 농촌으로의 유입 확대와 육성을 위해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하고,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 원하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임대후 매도사업, 시설 영농을 꿈꾸는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을 확대 추진 중”이라면서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배수불량 논 등 훼손된 농지를 복구하는 사업을 통해 우량농지를 청년농업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해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나온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해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선순환식 세대교체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 디지털 기술 활용...챗봇 서비스 최초 도입

정 이사는 ‘디지털 기술 활용’도 올해 농어촌공사의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대표적으로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 등 도입이 있는데 이는 농지거래를 희망하는 사업수요자가 공사의 방문 없이도 PC와 모바일을 통해 농지매매,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이다. 지난 1월 임대수탁사업을 시작으로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정 이사는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전 고객들은 최소 1회 이상 계약을 위해 농지은행에 방문해야 했으나, 전자계약 도입으로 디지털에 익숙한 2030 세대 등 농지 계약을 위한 직접 방문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연간 총 322만장 절약, 9.7톤 탄소 배출량 감소로 ESG 경영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는 또 있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높이기도 했다.

정 이사는 “행정안전부 챗봇 공통기반을 연계해 국민에게 민원 상담 제공하는 챗봇서비스를 공사 최초로 도입,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업정보 및 전자계약 안내 등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편의성을 증대했다”면서 “전자계약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방문 시(대면 방문고객) 계약 절차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창구를 구축할 예정이며 농지은행은 고객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디지털 농지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농가 경영 안전망 두텁게 할 것”

정 이사가 농지은행관리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항목은 세 가지로 꼽는다. ▲모든 조사 과정의 디지털화 ▲기금의 체계적 집행과 국가 간책지의 다각적 활용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인 지원 강화 등이다.

그는 “농지상사관리 조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AI 기반의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드론 활용 등 디지털 농지관리를 고도화하는 한편 농지의 취득 소유·이용·전용 현황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체계적 기금 관리를 통

계 설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100여년의 역사 속에 쌀전업농과 함께 주곡 생산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왔고 숭한 어려움속에서도 쌀농민들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게 정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농특지 않은 지금의 농업 환경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이 우리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방법이자 지속 가능성 확대를 위한 방법임을 함께 공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을 위한 일들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발전과 직결되고 쌀 산업의 최일선에 있는 쌀전업농이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농지은행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쌀 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그는 “쌀값이 안정되면 근본적으로 쌀의 적정 생산과 쌀소비 촉진

농지이양 은퇴 직불 사업 고령농 생활 안정 피해
미래 성장동력 키우는 선순환식 세대교체 기대

해 올해는 전년대보다 크게 증액된 농지은행사업비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적기 지원함으로써 고객인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타작물 재배 등 국가 간책지의 다각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농가 경영안정에 힘쓰겠다고도 언급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투입되는 농지은행사업은 올해 1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그는 “위기에 빠진 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의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경영 안정망을 그 어느 때보다 두텁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농지은행, 쌀전업농 발전 일조할 것

오랜 기간 이어온 쌀전업농과의 관

등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요하며 농지은행은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공임대용 매입농지에 타작물 재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쌀 수급안정 대안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농지은행 또한 정책 기조에 맞춰 쌀값 하락이 농가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쌀값 안정으로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식량자급률까지 높이는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사에서는 농지은행 사업을 지원할 때 타작물 재배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또한 면밀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욱·김해림 기자